

불교계 힘으로 사지 시굴·발굴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서 정토재 봉행

“지금 우리는 미탄사지 삼층석탑 앞에서 있습니다. 이 절터 역사는 천년의 시간 영원한 침묵의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옛 절터의 홀로남은 석탑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역사가 다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사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립)가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에서 정토재를 열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전국사지 시·발굴 조사사업은 이날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문화·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와 보성 개흥사 옛 절터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되며 서울 삼전사, 삼척 삼화사 옛 절터 등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토재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립 스님과 임석규 유적연구실장 이하 연구소 연구원들과 채수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류준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이주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토재는 헌향과 헌다, 관수 등 불교의

법과 고분문 낭독, 사업보고 및 격려사와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소장 각립 스님은 한글로 된 장문의 고분문을 통해 첫 사지 시·발굴사업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각립 스님은 “어려서부터 비가 올 때면 옛 절터에 뭍구는 기와 등 수많은 유구들을 볼 수 있었다”며 “오늘날 이러한 역사현장과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흔적이 방지

2017년까지 사지 시·발굴사업 진행 보성 개흥사, 서울 삼전사 등 계획 사찰 자료 및 기술 확보 계획

된 채로 사라져 간다는 점에서 승가의 일원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단순히 사지조사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힘으로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 삼층석탑 주변으로 비정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980년 이 기록에 따라 황룡사 남쪽 탐지 주변을 조사해 미탄사지 석탑을 복원했다.



경주 미탄사지에서 열린 정토재에서 고분문을 낭독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립 스님과 관계자들

한편, 미탄사지는 경주 미탄사의 <삼국유사>에 황룡사 남쪽 미탄사의 남쪽에 위치한(崔致遠)의 옛 집이 있었다는 사명이 기록돼 있는 신라고찰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어 신라 왕경 사찰의 도로체계 등 사찰 연구의 새로운 학술자료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총 35000평방미터 규모로 4명의 연구원과 6명의 인부를 투입해 37일간 시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어 신라 왕경 사찰의 도로체계 등 사찰 연구의 새로운 학술자료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제7회 원효학술상에 조성택·김재영 등 선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3일 제4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교수 부문에 조성택 고려대 교수(불교와 불교학), 비전임교수 부문에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의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영일 동국대 연구교수의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학생 부문에 송진섭 연세대 박사과정의 <대승불교 윤리이론이 지닌 정형적 형식에 대한 고찰>을 선정했다.

제4회 원효학술상에는 총 24편이 접수됐다. 시상식은 8일 오후 4시 30분 다보빌딩 3층법당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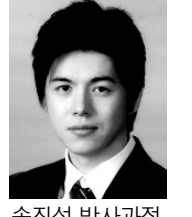
조성택 교수



김재영 교수



김영일 교수



송진섭 박사과정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7명 위촉

5월 2일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이 새롭게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 조계종 스님이 9명이 대거 위촉됐다.

조계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문화재분과-진명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동산문화재분과-홍선 스님(적지사 주지) △사적분과-원학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무형문화재분과-인목 스님(조계종 종의대위원장) △천연기념물분과-장명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근대문화재분과-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세계유산분과-장적 스님(세계유산분과문화재위원 연임) 등 7명이다.

전문위원으로는 △건축문화재분과-각립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무형문화

재분과-미등스님(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번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 79명, 전문위원 189명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 중 특정 대학·지역·분야·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차기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문화재위원 전체 회의는 5월 7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신승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계 수지 확산... 생태계 파괴 방지”

‘삼귀의와 오계’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는 육망의 종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자들부터 오계를 수지한다면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율장위원회가 개최한 ‘삼귀의와 오계’ 학술세미나서 삼귀의와 오계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의 ‘삼귀의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 기조발제와 함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경성 스님의 ‘삼보의 정의와 삼귀의계’, 前봉녕사 금강울화승가대학원장 대우 스님의 ‘삼귀의계의 제정과 그 정착 과정’, 통도사 영축출판사 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의 ‘삼귀의계의 역사 및 역할’,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의 ‘오계와 율리도계’, 계단위원 지운 스님의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오계의 재해석’ 등이 발표됐다.

이날 율장연구회 회장 철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지계에 대해 모든 선지식들이 한목소리로 언설하였어도 후학들이 이를 가버어 여기고 있다”며 “계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불교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계단위원 지운 스님은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오계 재해석’에서 “오계는 특히 식문화와 관련이 깊다”며 “오계를 지키면 건강을 지키고 또 식육을 위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이는 지구온난화 등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지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원로의원 인환 스님도 기조발제 ‘삼귀의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에서 “출재가를 막론하고 계는 지켜져야 한다”며 “계를 통한 수범수제에서 불교는 종교로서 존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전통보다 사회통합 의미가 중요”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 회장, 5월 3일 ‘연등회’ 세미나서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 전통성을 재검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한국불교민속학회(회장 홍윤식)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등회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이 ‘연등회의 전통과 그 전승’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회장은 “연등회의 문화적 가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충분하지만 그 전통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고려시대 연등회가 오늘의 연등회가 될 수 없다”며 “역으로 보편적 문화로서 연등회가 인식되고 문화형성의 주체로서 역할을 인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연등회는 분명 다양한 갈등을 지닌 한국사회에 화합을 유도하는 힘이 있다”며 “전통에 치우치지 보다 오히려 전국민의 축제가 돼 그 기능을 확산시



연등회 전통보다 사회통합 의미가 중요

켜나갈 때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무영 일본 아이치대 교수의 ‘초파일연등의 역사성과 고유사상’ △김용덕 한양대 교수의 ‘불교 전통연등의 전승실태 분석’ △구미대 동국대 외래교수의 ‘연등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동국대 교수 법현 스님의 ‘영산재 의식문에 쓰인 등에 대한 찬(讚)의 형식 연구’ △홍태한 중앙대 겸임교수의 ‘민간신앙에서 등의 의미’ △이윤수 고려대 외래교수의 ‘문화콘텐츠로 고찰하는 연등회의 축제성’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4월 30일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陝川海印寺觀音庵內典隨音疏)’는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완성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이고 음소(音疏)는 음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인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를 설명한 것에 대한 주석이다.

본문은 반야(般若)가 한역한 대승이취

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10권에 대한 음의(音義)가 수록됐고 권말에는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道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다.

재조대장경의 간인본에는 남아 있으나 대장목록에는 없으므로 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밖에 이날 문화재청은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九里太祖健元陵神道碑)’,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서울 太宗獻陵神道碑)’,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英陵神道碑)’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34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34호를 발간했다.

34호에는 △김영진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중국 위진불교의 운명 이해와 이과론’ △동국대 강사 자명 스님의 ‘신심명의 화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 강사 선웅 스님의 ‘원오의 심오에

나타난 선사상 고찰’ △고승학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신화영경론에 나타난 이통현의 화엄경 해석의 특징’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심문화쟁론 공(空)/유(有) 화쟁의 해석학적 변역과 논지 분석’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